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 단축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이 최대 25초 단축된다.

정부는 24일 포항지진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초에서 25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관측후 50초 이내, 지난해에는 관측후 15~25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육상 발생 지진은 7초, 해상은 25초에 조기경보를 발표하게 된다. 내륙의 경우 진앙지부근 25개의 관측장비 데이터를 분석해 경보를 내리고 있다. 평가기술을 고도화하면 10개 정도의 관측자료도 가능하다"며 "해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기경보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일본 지진으로 국내 진도 IV 이상의 진동 예상시 조기경보가 발표되는 것이다. 강한 진동의 지진파(S파) 도달전 지진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는 지역(Blind Zone)에 대해 원·사이트(On Site) 경보방식도 개발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게 지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지진에 대한 명칭부터 기준도 마련한다. 대상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다. 연도, 지자체(시·군·단위) 지역명, 지진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2017년 포항지진이 그 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키고 규모 6.0이상 대규모 지진에 대해선 수신 거부시에도 긴급문자가 강제 전송되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재난문자 송출내용은 휴대폰 기종별로 차별화한다. 2G폰은 60자(120byte), 4G폰은 90자(180byte), 3G폰은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수신 가능해진다.

또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

포항지진 미비점 보완 지진방재 개선대책 국외지진 국내 영향시 조기경보 시범 실시 규모 6.0이상 수신거부도 긴급 문자 전송

를 추진한다. 교체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진행된다.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율을 달리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

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 표준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5G 단말기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를 내실화해 신속·정확한 지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신율을 변경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시



천장 주저앉은 세월호 3층 중앙로비 2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세월호 3층 중앙로비.

'4년 아픔 고스란히' 직립된 세월호 내부 참혹·처참

세월호 직립 2주 만인 24일 공개된 선체 내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갑옷은 녹으로 뒤덮인 채 군데군데 깊은 상처를 내보였다. 이날 오전 목포신항만에 취재진과 선체조사위원회,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대형 워킹타워를 타고 화물칸인 D데크로 향했다.

화물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곳곳이 깨지고 망가진 선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별칭게 녹이 슬고 빛깔은 햇빛에 가까웠다.

3~4층 뱃머리 쪽 객실에도 '4년'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벽체 대부분이 침몰·인양 당시의 충격으로 처참히 찌그러져나 깨어 있었다. 여객정원과 총 승선원을 알리는 안내판도 훼손됐다.

옛가락처럼 흰 구조물도 눈에 띄었다. 밝힌 객실 바닥은 움푹 들어갔다. 희생자들이 발견된 장소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선조위 조사관은 객실 협착 부위

를 가리키며 "직립 이후 이 안쪽 구역에서 단원고 학생의 교복 등 유류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혈착부를 절단해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4·16 가족협 인양분과장은 손전등으로 객실 왼쪽을 비추며 "이곳이 남학생들이 있던 장소"라고 했다.

객실을 살핀 뒤 3층 중앙로비와 주방으로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다. 이곳에 설치된 구조물도 부서지거나 찢겨있었다. 각종 전선이 뒤엉켜 답답한 분위기를 더했다.

화물칸 바닥과 천장 쪽에 설치된 고박장지도 짙은 녹 덩어리로 덮였다. 바닥과 벽면 곳곳에는 검은 빛을 띄는 때가비가 널브러져 있었고, 일부 말라붙은 펄도 보였다.

내부 잔존물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판이 터져 버린 곳도 목격됐다.

선수와 선미도 바닷속에 잠겨있다가 나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선수에 설치된 좌·우현 앵커(뚝) 줄은 끊겨 있었다. 부식 또한

심했지만 괴괴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선미에 설치된 CCTV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하중이 쏠린 선미 윈편은 일부 휘어지고 뒤틀려있었다.

워킹타워를 내려오자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바빠 움직이고 있었고, 신항만 울타리의 노란 리본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날 안전을 고려해 선체 가장 아래 쪽인 D데크 내 기관·타기실 등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수부와 세월호 선조위는 다음 달부터 남은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간다.

최남규 기자



'대문 부수고 침입' 노후주택만 턴 4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차모(49)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A(58·여) 씨의 집에 침입해 410만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노후 주택 10여 곳에서 12차례에 걸쳐 총 2386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차 씨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지 확인한 뒤 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는 수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되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일당 안준다' 같은 중국동포 살해 30대

일용직 일당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사망케 한 3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35)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8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길가에서 중국동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가슴을 수차례 찔린 뒤 주변 행인들의 신고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용직으로 이를 일한 수당 30만원을 현장에서 함께 일한 B씨가 받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일당을 돌려 달라며 근처 PC방에 있던 B씨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이후 밖으로 나와 거리에서 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경기도 안중파출소에서 지수했다. 경찰은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찾아다니다가 PC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한다는 한 방송사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보건소와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병원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 jbc 뉴스룸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울산의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3년 넘게 요실금부터 복강경 자궁수술까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안모 씨는 이 병원에서 3년 넘게 '안 실장'으로 불리며 의사들이 해야 할 각종 수술을 맡았다.

요실금 수술부터 내부 장기를 건드릴 수 있는 복강경 자궁수술까지 진행했다.

뉴스 제보 영상에는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안씨가 수술용 가위와 폐스를 들고 수술부위를 자르는 등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의사가 안씨에게 직접 수술을 맡기고 문을 나서는 모습도 담겨있다.

보도가 나간 후 울산 중구보건소와 중부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보건소는 23일 해당 병원을 찾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진행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다만 정확한 의료법 위반여부는 경찰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적인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해당 병원은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본원에서 있을 수도, 있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은 의외적인 편집과 제보영상을 기초로 본원의 실명과 의견은 묵살된 내용이다"며 "현재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